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원주 제3주일
http://www.103skcc.org 제35권 9호(나해) 2015년 1월25일

[묵상]



나를 따라 오너라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설교의 요약이었다.

하늘나라에 초대,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조건.

그렇다.

하느님께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유일한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느님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자신을 망치면서 살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포자기 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산다는 것은 불행이고 비극이다.

절망하거나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언제나 회개할 수 있다.

회개는 절대로 너무 늦을 수가 없다.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평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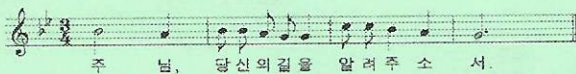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김병조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변혜경 올리안나,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김기준 안젤라, 이용식 베드로, 현시영 요셉, 박기진 이나시오, 김봉선 마리아, 권분남 콜롬바, 하이늘 프란시스코, 김정윤 요한, 윤희중 (생)장영진 안토니오, 서성용 베드로, 정린다 켄마 & 정엘리스 클라라 & 정애나 & 정에릭, 이태옥 아가다 & 매피의 여왕pr., 송수천 시몬, 박음전 아네스 오마우라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나 예언서(Jonah)3,1-5.10

화답송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주님은 어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1 코린도(Corinthians)7,29-3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 음 마르코(Marco)1,14-20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78	182
봉헌	255	257	217
성체	주품에	289	289
파견	199	187	187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세신

제3장

‘성령세신운동’의 빛과 그늘

2. ‘성령세신운동’의 그늘

성령세신운동의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신령한 언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은사는 좋은 것이기에 이 은사에 마음을 열도록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신령한 언어에만 집중할 정도로 이 은사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신령한 언어만이 아니라 치유의 은사도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치유의 은사 그 자체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구원 활동을 펼치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표징이다.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그분께서 인류를 해방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이었다. 치유는 예수님과 만나서 자신의 상처를 그분께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얻는(루카8,43-48 참조) 은총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고(루카 17,18 참조),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외적으로 병이 낫는 데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종종 있다. 대체로 이런 이들은 기도나 안수를 단지 치료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공식 검증과 인준을 받지 않은 채 치유나 기적을 주장하고 대중들 앞에서 신전하며, 미처 확인되지 않은 치유 사실을 기도 모임에서 증언케 함으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치유 은사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의학적 검증도 없이 유인물을 통해 공적으로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전적으로 육체적 치료에만 집착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2) 가계(家系) 치유

가톨릭 교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이래로 죽은 이들에 대한 기억을 커다란 신심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여 왔으며, 죽은 이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2마카 12,45 참조),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바쳤다. 57)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단지 조상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들의 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곧 기도 중에, 부모나 조상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면서 그들과 화해할 수 있다.

<◆계속>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가난한 삶을 살란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가난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이 못난 사람들 사이에서 묵묵히 살아가라고요? 그곳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진리를 익히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3년 동안 복음선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묵인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힘차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상업주의 사회의 첨단을 달립니다. 더 많이 소비하도록 강요당하면서 모두들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 사회 한가운데서 생생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라고요?

예수님께서서는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십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과 인간은 완전히 결합하였고, 그곳에서 힘없이 늘어진 채 벌린 두 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아서 성부께 바치십니다. 여기서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저희더러, 수난의 길을 거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생명을 바치는 이 완전한 사랑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히 이런 하느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저희를 이 세상에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활과 승천을 뒤따라라고 하십니까? 저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부활하고 하느님 옆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삶이 세레로써 저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저희가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 주수육 신부 / 대방동성당 주임

변할 수 없는

풀피리를 불어주던 아버지, 날 업어주던 아버지,
환하게 웃는 젊은 아버지, 백발의 아버지,
약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버지, 자꾸만 짜증을 내는 아버지,
그 모두가 내 아버지입니다.
한번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점점 지쳐가는 나 역시,
아버지의 딸입니다.
한번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미영 미카엘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복 1반

공지사항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제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오는 2월18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5 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오늘주일(25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월)저녁7시30분(새벽미사없음)

◆ 신 영세자 첫 고해성사

- 일시 : 1월18일(주일)~1월31일까지 미사 전
- 대상 : 12월21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

◆ LA대교구 지문채취안내

LA 대교구 방침에 따라 본당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문채취를 해야 합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하므로 꼭 사무실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 일시 : 2월7일(토요일)10시~1시40분, 오후 3시~5시20분
- 장소 : 강당
- 준비물 : 지문채취시 운전면허증, 또는 정부발급 I.D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 2014년(작년) 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

작년 한 해 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감사헌금, 특별목적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 우송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봉헌내역은 인컴택스 리턴(개인세금보고)을 위한 현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소변경으로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25일(주일) * 토남1,2반 : 소고기 무국(\$3)
* 주일학교 : 치킨 케사디아(9학년)
- 2월1일(주일) * 소공동체 : 김밥(\$4)
* 주일학교 : 햄&치즈 샌드위치(8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경철호 김 명 김광일 김낙기 김대우 김선영 김성택 김은학 김재영 김정희 김찬구 김학겸 김효진 나경흠 박광자 박선희 박정자 배태임 송영미 신순철 양영관 오명섭 육근주 이경수 이미예 이민상 이병우 이윤정 이용무 이태옥 임 순 임연조 정동호 정인옥 정훈모 조준제 최길주 최열자 최의수 최지영 한장환 호경진 홍인표 황철수 한길선례	경철호 김광일 김대우 김찬구 김효진 나경흠 박광자 박선희 박정자 신순철 양영관 이경수 이민상 이병우 이용무 임 순 정동호 정훈모 조준제 최길주 최열자 최지영 한장환 한길선례
주일미사 헌금 : \$2,525	합계 : \$1,655 감사헌금: \$160 (배태임 안나, 이데레사&엘리사벳)
한남체인 : \$320	수표교환 : \$1,2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 피정

- 일시 : 2월27일(금)~3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 참가비 : \$60 (1/18~2/8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핑백, 재킷, 세면도구, 학교티셔츠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주일학교 사순 피정학부모설명회

- 2월 8일 (주일) 오후1시 정전

◆백삼위 한국학교 2학기 등록을 받습니다.

- 1월 25일까지 20% 할인 혜택이며, 2월부터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단, SAT반은 \$ 200.)
- 접수장소 : 백삼위 한국학교 교무실
- 접수 일시 : 1월 25일 10시30분 ~ 2시30분

◆백삼위 한국학교 1 학기말 시험 성취도 평가 우수자 시상식...18명

개나리반-최진, 백승준
무궁화반-노미래, 현미나
해바라기반-권순, 김효정, 이예서, 이선재, 이지선, 정채운
장미반-이수인
코스모스반-이채빈, 황성원
민들레반-이유진
수선화반-박소은, 박정은
진달래반-이연준, 안효경

◆제 4회 <백범 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 주최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KOSAA)/ 백범 김구선생 기념 사업 협회, 재단 법인 김구 재단
- 대상 : 미주한국학교연합회 산하 한국/한글 학교 재학 중인 4~12학년

◆제 40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 시험 실시일 : 4/25/2015(토) 09:00 ~ 16:00
- TOPIK 1 : 09:00 ~ 11:00
- TOPIK 2 : 12:00 ~ 16:00 (중간 휴식 30분 포함)
- 접수기간 : 01/08/2015 ~ 02/14/2015(토)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103skcecks@gmail.com

“세 신자 환영합니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옥찬 수산나 991-4838 1/18(일) 오후1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10(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체스코 592-4739 1/16(금) 오후7시30분 성당 2층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동수 베드로 218-7340 1/10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김인성 스테파노 991-8558 1/10(토) 오후5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윤선희 로사 710-8416 1/17(토)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625-3312 1/23(금)오후 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634-6923 1/9(금) 오전11시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424)232-8522 1/12(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1/10-1/11 팝스프링 온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이 리비나213-700-6983 1/16(금)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9(금)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 명 베드로 974-2211 1/17 (토) 오후4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 19> 김사집 프란치스코(1744~1802)

‘성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김사집 프란치스코는 충청도 덕산의 비방고지(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창말) 출신으로, 과거를 준비 하던 중에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세속 학문을 버리고 교리를 실천하는 데에만 노력하였으며 일상을 기도와 독서로 보냈습니다. 김사집의 타고난 슬기와 재능,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 대한 희사와 애국은 복음 전파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교회 서적을 열심히 필사하여 가난한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효성이 지극하였던 그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2년 동안 육식을 삼가면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예를 다하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교우들에게 나누어 준 책들이 압수되면서 이내 김사집의 이름이 관청에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덕산 관아로 압송된 그는 관장에게 유혹과 형벌을 번갈아 받으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관장은 배교할 의사만 있으면 이내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사집은 “위대하신 천주를 섬기는 제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관장이 그에게 죄수들을 매질하는 천한 임무를 맡겼지만, 이것마저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김사집은 옥중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 “천주님과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교우답게 살아가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하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사집은 해미로 이송되어 치도곤 90대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2개월 뒤에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청주 병영에 이송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해미에서 청주로 가는 3일간의 180리 길은 참아내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주로 이송되고 얼마 안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는 장터(현 충북 청주시 남주동)로 끌려 나가 곤장 80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때가 1802년 1월 25일로, 당시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목격한 증인들의 말에 따르면 김사집은 신·망·애 삼덕(三德)이 끝까지 아주 열렬했고 마음이 철석같이 굳었다고 합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하느님도 웃어버린 기도

*하느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라고, 아빠는 하느님한테 부탁하라고.

하느님은 하실 수 있죠?

하느님, 화이팅!

- 로버트 -

*하느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느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시는거예요?

- 루이스 -

* 하느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 난 -

* 하느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썸 드릴게요.

- 크리스 -

* 하느님,

제 친구 아더가 그러는데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있는 꽃을 다 만들었다고.

꼭 거짓말 같어요.

- 벤자민 -

*하느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 가이 -

*하느님 하느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시나요?

가장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 바바라 -

* 하느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 죠이스 -

* 하느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가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미셸-

* 하느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이 이야기가 뽕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 시드니 -